고려대학교 수리돌봄연구회
공개 세미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도시미래연구센터

사물돌봄:
사물과 함께 살아가기

참가 신청 및 문의
woosee0302@korea.ac.kr

우리는 고장 나면 쉽게 버리고 새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고쳐 쓰는 일상'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 되고 있다.

사물돌봄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물건을 돌보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의 이름이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에서는 일상 속 사물돌봄을 실천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단순히 자원순환을 넘어 물건과 맺는 새로운 인연을 상상하고,
수리할 권리의 의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와 환경의 이야기를 나누며,
버려진 사물이 다시 살아나 예술이 되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이번 자리를 통해 '돌보고 고쳐 쓰는 일상'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넘어 희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묻고 답해볼 예정이다.